

## 참 고 문 헌

- ① *Colvin's Newtestament Commentaries*, Matthew, Mark and Luke, Vol 1 Eerdmans 1972.
- ② David Masson, Introduction to the paradise Regained in *The poetical works of John Milton*, 1877.
- ③ H. R. Rookmaaker, *Modern Art and the death of a culture*, Inter-Varsity press, 1970.
- ④ John Milton, *paradise lost*, Edited by Merrit Y. Hughes, 1935.
- ⑤ Merle Meeter, *Literature and Gospel*,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72
- ⑥ *The Norton Anthology of English Literature*, W.W. Norton & Company, 1962.
- ⑦ *The Oxford Anthology of English Literature*, Oxford University press, 1973.
- ⑧ *Ray Summer's Commentary on Luke*, Word Books, publisher, 1972.
- ⑨ Rene Wellek and Austin Warren, *Theory and Literature*, Penguin books, 1966.
- ⑩ *Encyclopaedia Britannica*, 1969.
- ⑪ *The New Bible Dictionary*, I. V. F & Tyndale Press, 1970.
- ⑫ 도스포엠프스키, 채매치 역,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동서문화사, 1976.
- ⑬ 존·밀턴, 유령역, 실라원·복라원, 을유문화사, 1973.
- ⑭ 영국 문학사, 신구 문화사, 1969.

## 예수 그리스도와 학문

—기독교 과학철학의 관점에서 본 가능한 하나의 시도—

金 進 燮

目	次
A. 서론	3. 기독교 과학철학에서 본 가능한 본체론
1. 문제점의 제기	4. 기독교 과학철학에서 본 가능한 방법론
2. 소년 예수와 학문	5. 기독교 과학철학에서 본 가능한 가치론
B. 본론	6. 학문과 지식, 지혜의 문제
1. 용어규정	C. 결론
2. 기본전제	

### A. 서론

#### 1. 문제점의 제기

기독교인들, 특별히 학문적인 준비과정에 있는 기독교학생들이 학문과 관련하여 많은 갈등을 안고있다. 이 세상은 지금 사탄에게 속하여서(요16:11) 세상과 벗되고자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약4:4)고 하는데 그렇다면 비기독교인의 강연이나 저서를 접하는것은 사탄의 조직에 살을 대는것과 같은것이 아닌가? 1) 많은 학문은 교만하게 하며, 미치게 하며, 비영적인 것으로 전락시키는 위험한 것이 아닌가? 2) 자연과 기적, 육체와 영혼, 세상과 교회, 이성과 신앙, 도덕과 종교 사이의 갈등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하는가? 3) 기독교 교회사적으로

- 1) 현대 한국기독교 독서계에 영향력이 큰 Watchman Nee의 저서중에 *Love not the World*(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생명의 말씀사, 1972)는 이런 의문을 유도한다.
- 2) 참조: 고전8:1; 행26:24.
- 3) 은총의 영역과 자연의 영역을 분리하여, 자연은 하나님 없이도 연구 해석할 수 있는 것이어서, 비록 자연을 진지하게 논리적으로 연구하면 만물 배후에 "어떤 신"이 있다는 지식이 불가피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단지 "결과물"(end-product)일뿐이며, 은총의 영역은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구원을 위해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바, 하나님을 "전제"(Presupposition)해야 한다는 주장은 Thomas Aquinas의 *Summa Contra Gentiles*에서 비롯된 로마교의 입장인바, 이러한 이원론적 입장을 가진 복음주의자들도 있다.

볼때 근본주의자들 불리우는 복음주의자들이 학문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였고, 기독교의 사회적, 문화적 책임을 자유주의자들에게 넘겨준 원인이 무엇인가?<sup>4)</sup>

종교개혁을 통하여 천명되어진 “각영역에서의 하나님의 주권” “일반은총” “만인제사장적” 등의 중요교리들이 학문하는 자세에 어떤 영향력을 끼쳤으며 특히 오늘날 개혁주의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sup>5)</sup> 진화론은 물론, 공학, 심리학, 의학, 사회학, 언어학, 인류학, 역사학, 고고학, 미학, 음악, 철학등에까지 성경교훈의 기초를 잡아먹으려는 분위기가 교묘하게 불가항력적으로 작용하는 우리의 학문 작업장에서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한결 같이 참으로 구주가 되실수 있는가?<sup>6)</sup>

## 2. 소년 예수와 학문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셨던<sup>7)</sup>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하여는 놀랄 정도로 침묵하고 계신다. 소년 예수로서의 성장하는 모습은 눅 2:41~52에만 유일하게 소개되어 있다.<sup>8)</sup> 그것은 열두살 되는해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이다.<sup>9)</sup> 그 사건의 중심은 “사흘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히 여기더라.”(46절)는 것이다. “이것은 나사렛에는 좋은 선생이 적었으므로 수도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은 배움의 최적의 기회요, 소년 예수의 지식에 대한 강한 열망을 드러내며”<sup>10)</sup>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려는 선생의 자세가 아니라 배우는 학

- 4) J. I. Packer, *Fundamentalism and the Word of God*(근본주의와 성경의 권위, 육한음역, 한국개혁주의 신행협회, 1973) pp. 38-48을 보라.
- 5) 이 논문에서, 하나의 완전한 사상체계로서의 칼빈주의 문화관이나 학문관을 제시할 수 없다. Henry R. Van Til, *The Calvinistic Concept of Culture* (칼빈주의 문화관, 이근삼역, 영음사, 1972); Francis Nigel Lee, *The Central Significance of Culture*(The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 Co., 1976); 이근삼, 칼빈·칼빈주의 (고신대출판부, 증보판 1976), 특별히 “칼빈주의 학문론”(pp. 147-157)을 보라. 칼빈주의가 과학(학문)을 육성시킬 수 밖에 없었던 이유와 그 역사적 사실들에 대하여는 Abraham Kuyper, *Lecture on Calvinism* (칼빈주의, 박영남역, 새중출판사, 1971); R. Hooykaas, “Science and the Reformation”, *Religion And The Rise Of Modern Science* (Eerdmans, 1972) pp. 98-190; Russell W. Maatman “Has the Bible Helped Science?” *The Bible, Natural Science And Evolution*(Reformed Fellowship, 1970) pp. 7-18을 참조하라.
- 6) 약관 24세에 Harvard대학에서 철학박사(수학전공)학위를 받고(1970년), Fresno에 있는 California State University에서 수학과 조교수로 있다가 1971~1974까지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에서 목회학 석사, 신학석사 학위를 받은 Vern S. Poythress의 *Philosophy, Science And The Sovereignty Of God* (Presbyterian & Reformed Publishing Co., 1976)은 이 문제에 놀라운 통찰력을 줄 것이다. 필자는 이 논문을 쓰기 시작할 때, 이 책을 읽게되어 이책에 크게 신세를 지게 되었다.
- 7) 참조 : 마18:4-14; 19:13-15; 막9:36-37; 10:13-16; 눅18:15-17 등
- 8) 누가는 12년 동안의 성장과정을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40절)고 한결로써 요약하고 있다. 16절 아기(Brephos), 40절 아기(Paidion), 43절 아이(Pais), 48절 아이(Teknon)는 성장을 보여주는 중심 단어이다.
- 9) 유대 소년들이 회당의 정식회원(Son of the Commandment, Bar Mitzvah)이 될수있는 13세가 되기 전에, 1~2년에 한번 예비로 데려가야 했다. (Mishnah, Aboth 5:21, Niddah 5:6, Yona 8:4)
- 10) Leon Morris, *Luke*: Tyndale N. T. Commentaries p. 91.

생의 자세로 있기 때문에 선생들은 그의 지혜와 대답에 놀라게 되었다”<sup>11)</sup> 이 사건후 부모에 효도하는 자세를 설명하면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52절)고 끝맺음으로 그후의 약18년의 세월을 요약하고 있다.<sup>12)</sup>

예수님의 어린시절에 탄복할만한 일을 많이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면 그는 벌써 어린이가 아니다. 모든 자연 성장과정으로서 완전하게 지혜와 키가 자라가는중에, 공사역의 배를 준비하면서<sup>13)</sup> 바로 학문하는 자세를 시위하는 정도로 성경은 끝내고 있다.

## B. 본 론

### 1. 용어 규정

학술적 논제를 위해 어떤 용어를 사용할때, 본질적으로 그것은 신생어(新生語)와 같은 것으로서(신생된 용어도 물론 있다.), 자신이 사용하는 특별한 의미가 그대로 독자에게 적용되고 있는지, 일상적 의미로 되돌아 가거나, 일상적 의미를 배합하는지를 항상 조사해야한다. 그러나 그 용어가 완전히 정확한 의미를 갖는것은 불가능하며, 사용되는 모든 경우에 정확히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이 애매모호성은 애매모호한 의미로서 중복되는 넓은 범위의 차이들을 논하려는 목적에 어울리게 하는 셈이다.

학문이란 단어는 개역한글성경에서는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5회 나타난다. 학문으로 번역된 원어들은 각각 ‘maddā’ (단1:4), ‘sepher’(단1:17), ‘grammatos’(행4:13), ‘logios’(행18:24), ‘grammata’(행26:24)인데<sup>14)</sup>, King James 역본은 각각 ‘science’, ‘learning’, ‘learned’, ‘eloquent’, ‘learning’으로 번역하고 있다. 국어대사전(이회승편, 민중서관)은 학문을 배워서 익힘, 체계가 선 지식으로 정의하고 있거니와, 성경원어상의 뜻을 고려하여볼때 학문을 지식의 체계화, 저작(著作), 연구 및 발표행위로 규정할수 있다.<sup>15)</sup>

학문을 영어로 Scholarship 혹은 Science로 표기하거니와, 전자는 연구행위(Study)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의미로, 후자는 체계적 지식의 보다 좁은 뜻으로 규정할 수 있다.

- 11) Norval Geldenhyus, *Commentary on the Gospel of Luke: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p. 127.
- 12) 비교. 눅3:23.
- 13) 때에 대한 주님의 태도의 대표적 예; 요7:1-30.
- 14) maddā는 yadha (to know)에서 온 것으로 “that which is known”, sepher는 “book, literature”, grammatos는 “letter, book”, logios는 “eloquent, learned”를 뜻한다.
- 15) Vern S. Poythress, *Philosophy, Science And The Sovereignty of God*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1976), pp. 137-138 “Study is Personal activity with Prophetic Weight, or the result of such activity. ...so that, for example, books are Studies, ...” “More over,” Study includes both Study and communicating of what is studied, as in teaching.”

King James역본에 Science는 단1:4과 딤전6:20 두곳에만 나타나는데 단2:4의 'madda'는 단 1:17에서는 'knowledge'로 딤전6:20의 'gnoseos'도 롬11:33, 골2:3등에서 단지 'knowledge'로 번역하여 20세기 의미로서의 Science뜻이 아님을 보여준다.

우리가 Science를 일상적으로 과학이라 번역할때(보다 넓은 의미로 학문이라 번역할수 있지만), 그것은 물질적 우주와 그속에 작용하는 법칙들에 대한 연구<sup>16)</sup>인 자연과학(natural science, 혹은 physical science)을 뜻한다. 그러나 과학을 좀더 세분하면 사회현상에 대한 연구로서의 사회과학(social science), 인류문화에 관한 정신과학으로서의 인문과학(Humanities), 수학, 물리학 등과 같이 양적규정의 논증체계로 조직할 수 있는 과학으로서의 정밀과학(science exactes)등의 명칭을 갖게 된다.<sup>17)</sup> 따라서 과학이란 용어의 용통성과 유동성의 문제는 세분된 과학분야사이의 관계에서 피할수 없는 것이다. 즉 과학이 사회과학이나 인문과학을 포함하거나 제외할 수 있으며, 점성술, 연금술(alchemy), 마술같은 사이비과학(pseudosciences)을 포함하거나 제외할 수 있으며, 비기독교신자로서의 "과학자들"을 포함하거나 제외할 수 있으며(그들의 활동이 하나님을 위한 봉사가 아니므로), 동양문화권에서 보는 역학(易學, the science of divination)같은 덜 세련된 형태의 지식도 포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또한 과학이란 용어와 철학과 신학이란 용어간의 상호관계문제가 있다.

Abraham Kuyper, *Principles Of Sacred Theology* (Eerdmans, 1968), pp. 59-105, 228-340과 Herman Dooyeweerd, *In the Twilight of Western Thought* (The Craig Press, 1965), pp. 113-172를 보면 신학과 과학은 정확한 하나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밀으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Kuyper는 특별히 어원학(etymology)은 당대의 의미와 분석에 규범이 아니라는 사실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것 같다. Kuyper는 "과학이란 전체로서의 인간학(human science)"으로 (칼빈주의, p. 149), Dooyeweerd는 "신학이란 신앙적 면을 연구하는 과학"으로 정의한다(A New Critique Of Theoretical Thought Presbyterian and Reformed, 1969, II, p. 562). 이것은 오히려 Science를 보다 넓은 의미의 학문으로 이해하는 듯하다. 필자는 Poythress의 입장과같이 과학을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으로 규정하고 대조적으로 철학과 신학을 각각 구별된 용어로 사용할 것이나,<sup>18)</sup> 이 규정도 역시 서로 밀접히 관계되며 중복될수 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다.

## 2. 기본전제

- 16) Russell W. Maatman, *The Bible, Natural Science, And Evolution* (Reformed Fellowship, 1970), p. 2  
 17) Poythress, p 139 "Natural Science" is Refined Modal Study by Cosmic Men of Behavioral, Biotic, and Physical Modes." "Social Science" is Refined Modal Study by Cosmic Men, of the personal Mode and various Functions within it, especially when such study has methodological similarity to Natural Science. When such methodological similarity is at a minimum, we speak of 'Humanities'.  
 18) Poythress, pp. 140-141.  
 "Philosophy" is Refined Boundary Study by Cosmic Men."  
 "Theology" is Refined Evangelical Study by Cosmic Men."  
 그는 pp. 206-236에서 "Glossary"를 만들어 대문자로 쓴 용어들(예 Refined)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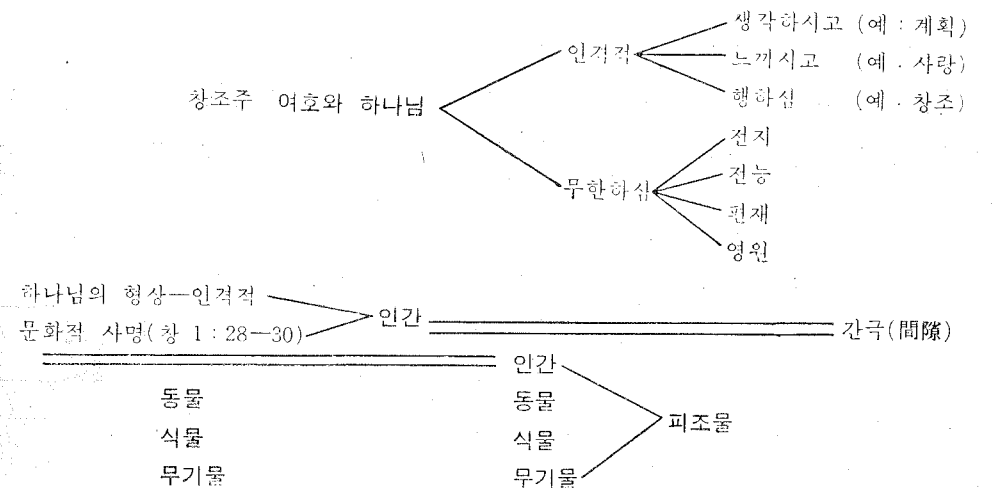
선입관없는 해석은 없으며 순환논법(circular reasoning)을 피할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말에 우리는 전적으로 동의한다.<sup>19)</sup> 모든 학문은 증거를 가지고 논박될수 없는 성격으로서의 전제를 요구한다. 이 전제(presupposition)는 신앙(faith), 신념(belief)등의 용어로써 대체할수 있다. 현대 생명과학(life science)에 팽배한 진화론 사상은 "모든 생물체가 무기물 형태의 단일 기원에서 유래했다"는 전제(가정)에서 출발하는 신념들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과학자들은 진화 그 자체를 엄연한 사실이라 주장한다. 개방된 심성(open mindedness)에 의한 중립적 지식(neutral knowledge)을 강조하려는 현대 과학자들의 과학적 증거(scientific proof)는 결국 신념 아래 종속된 증거에 불과하며, 기독교인의 전제도 성경자체를 의존하는 신앙인 것이다.<sup>20)</sup>

학문하는자의 전제는 세계관(Weltanschauung, World View)과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 세계관은 대신관(對神觀), 대인관(對人觀)과 대물관(對物觀)으로 구성된다.<sup>21)</sup> 필자는 세계관이란 관점에서의 전제를 다음과 같이 도식화 하겠다.<sup>22)</sup>

(도표 1) 세계관에서 본 전제

(도표 1)

세계관에서 본 전제



여기 여호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오직 성육(成肉, incarnation)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이 정확히 알수 있는 분이시다(마11:27; 요14:6; 요한2서 9). 따라서 예수 그리스

- 19) Rudolf Bultmann, *Existence and Faith* (Living Age Books, 1960) pp. 289 이하와 C. Van Til, *The Defense of the Faith*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 Co., 1967), pp. 99이하. pp. 179이하는 특별히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20) Norman De Jong, *Education in the Truth*, (Presbyterian and Reformed, 1969) p. 29. 학문하는자의 입장은 결국상 두가지 뿐임을 논증한 것으로는 Russell W. Maatman, Ibid, pp. 1-6을 참조하라.  
 21) Abraham Kuyper, "세계관으로서의 칼빈주의" 칼빈주의, pp. 20-59를 보라.  
 22) 이 도식은 Francis A. Schaeffer, *Pollution and the Death of Man: The Christian View of Ecology*, (Hodder and Stoughton, 1970) p. 36을 중심한 것이다.

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다(고전12:3 ; 행10:36 ; 히1:10-12).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영(성령)을 나의 마음속에 보내셔서, 나는 그길, 그진리, 그 생명이시라”는 말씀을 믿고 이해하도록 인도하시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함과, 나와 인류와 세상의 창조주, 구속주로서 그리스도와 의 올바른 관계를 알지 못할 때, 나는 아무사실도 똑바로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매일 새롭게 절감하도록 배우게 하시는 나의 **구주(Lord)**이시다.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성경의 교훈에 대하여 어느정도 견해를 달리하는 불행 때문에, 필자의 성경해석의 태도는 개혁주의 신앙(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을 우리의 믿음과 생활의 신조로 하는) 노선이란 전제를 더욱 정확히 명시함이 좋을 것이다.

### 3. 기독교 과학철학에서 본 가능한 본체론

학문론(Wissenschaftslehre)내지 과학철학(philosophy of science)은 일반적으로 상호 관련된 세계의 기본 문제들을 전제로 한다. 즉 ①무엇을 연구하고 있는가? ②우리가 그것에 관해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게 되는가? (과학적 방법) ③이 연구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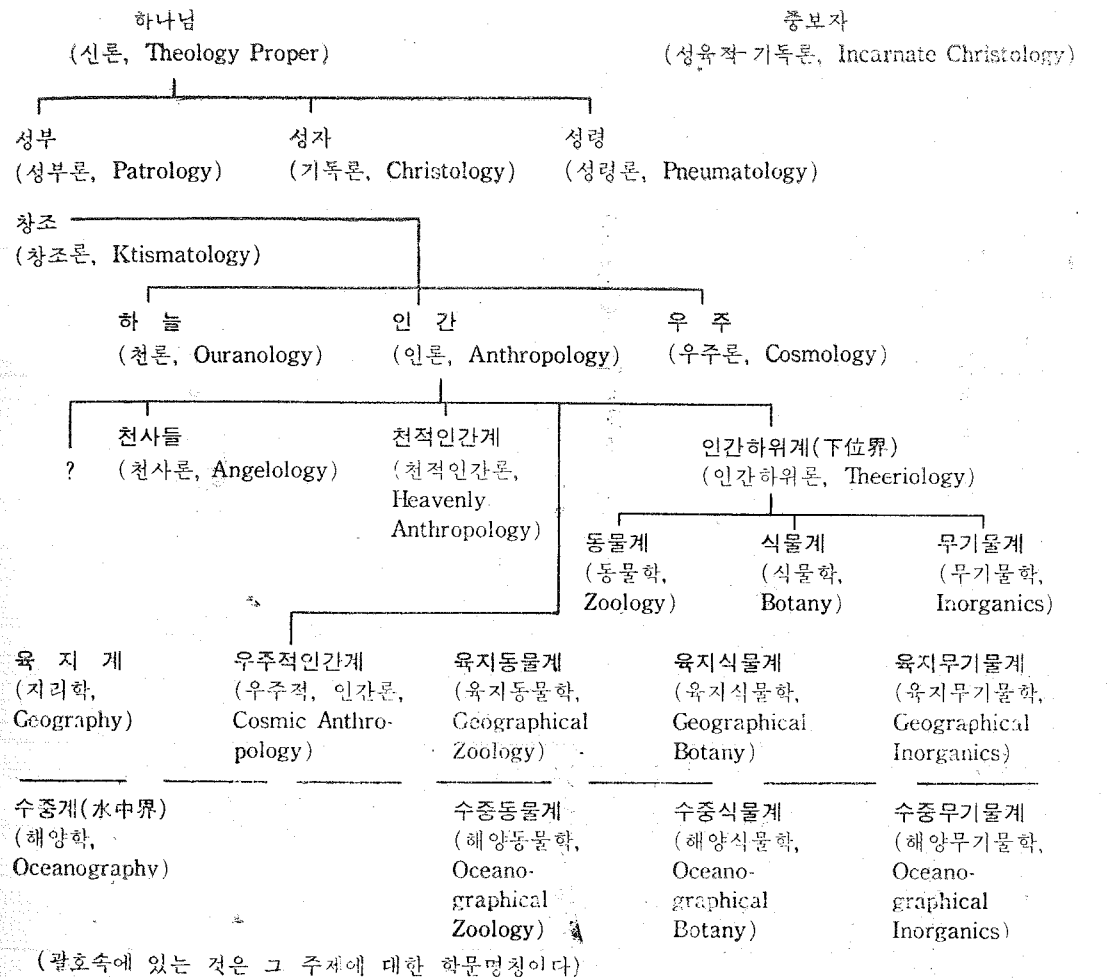
이것을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좀 더 쉽게 표현한다면, ①거기에 무엇이 있는가? (본체론, ontology) ②만물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인식론, epistemology ; 좀 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방법론, methodology) ③왜 거기있는가? (가치론, axiology, 즉 가치체계 system of values)이다. 가치론에는 어떤 특별한 문제를 선택하는 타당성은 물론, 과학적 업적들의 성질과 타당성을 평가하는 수단들을 포함한다.<sup>23)</sup>

학문의 대상에 대한 질문으로서의 “거기에 무엇이 있는가?”에 대하여 철학사적으로 수많은 해답들이 있어왔으나 필자는 이것을 종교적 질문으로 다루어 성경적 해답을 제시하려고 한다. (이 해답이 이 질문에 정확무오한 유일의 답은 결코 아니며, 성경외에 정확무오한 단언은 있을 수도 없다) “거기에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의 피조물이 있다(창1:1). 하나님의 만물은 단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특징을 유지해야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경배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출20:3 ; 롬11:36 ; 계22:9).

여기서 **하나님과 피조물**에 대한 학문이 시작된다. 필자는 학문을 본체론적으로 분류함에 있어서 Vern S. Poythress의 접근방법을 동일한 입장으로 취하여 소개하겠다. (그의 책 pp. 9-26에 이 분류의 용어규정과 그 타당성을 논하고 있다.)

23) Poythress, p. 7 ; Francis A. Schaeffer 박사의 3부작(trilogy)인, *The God Who Is There, Escape From Reason*과 *He Is There And He Is Not Silent*의 연구안내와 저자가 직접 쓴 “How I have come to write My Books”로써 엮은 *Introducing to Francis Schaeffer*, (Intervarsity Press, 1974) study 9, “The Metaphysical Necessity”, study 10, “The Moral Necessity”, study 11, “The Epistemological Necessity: The Answer”를 참조하라.

(도표 2) 본체론의 개요



특히 창1:28~30에서 인간의 문화적 사명을 명하신 후에, 인간을 위해 특별히 본체론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구별하므로써, 각 형태의 사물에 대한 인간의 적절한 행동에 관한 무엇을 알게 한다.

다음의 도표를 참조하라.

(도표 3) 동물, 식물, 무기물계에 대한 창1:28-30의 교훈

상징	구별방법	동물	식물	무기물
P	특징들	움직이는 모든 생물 ; "생령"=호흡하는것	씨맺음 ; 즉 성장과 재생산 ; 푸른	"땅"
W	문제되는 피조물에 대한 인간의 사명	다스리라	그들을 식물(食物)로 주노라	충만하고 정복하라



F 다른 계(界)들과의 관계 식물(植物)먹고; 동물 위한 식물(食物); 동물과 식물  
 땅에 기고 지면에 자랄 위한 토대  
 (여기의 상징은 여러가지 의미로 사용될 것이나 가장 주된 의미를 예로 들면  
 P = 양식성(Modality) W = 일시성(Temporality) F = 구조성(Structurality)

4. 기독교 과학철학에서 본 가능한 방법론

방법론이란 용어는 과학자들이 실제 사용하거나 혹자를 판단하는데 사용 해야만하는 기술(技術)들을 생각나게 하므로 좀더 넓은 의미의 질문으로 “만물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라고 묻는 것이 좋겠다.

물론자의 의도에 따라 이 질문의 대답도 다양하겠으나, 역시 이것도 종교적 질문으로서 취급하여 하나의 포괄적 답을 말할 수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불드시며”(히1:3)이다.

우리가 방법론을 논하는 가장 단순한 절차는 창1:28~30을 다시 더 조사하는 것이다. 방법론을 본체론과 분리할 수 없는 것은 본체들 사이의 차이를 다루어야 하기때문이다.

도표(3)에 따라 (1)각 계(界, Kingdom)의 다소간 일정한 특성들(도표(3)의 P. 양식성 Modality), (2)인간의 지도하에 피조물들의 역사적 발달(도표(3)의 W. 일시성 Temporality), (3)피조물의 연결과 관계들(도표(3)의 F. 구조성 Structurality)로 세분하여 논할 수 있으며, 역시 이 구분도 서로가 맞물려있다.

(1) 양식성(樣式性, Modality) : 각 계(界)의 특성들을 논하는데서 과학(학문)의 분류가 시작되며 각 계(界)의 상이한 특성들의 분석에서 우리는 과학(학문)사이에 존재하는 다양성을 설명하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이 특성들은 더욱 세분될 수 있으니, 보다 저급한 계(界)의 주요 특성들은 보다 상위(上位)의 계(界)에서도 역시 발견되므로 (예를들면 광물계가 갖는 색깔, 형태, 결(texture), 열(熱) 등은 모든 우주가 갖는 것이다), 하위계(下位界)가 갖는 특성에 덧붙여 상위계가 갖는 특성들의 총칭으로서의 특성을 양식(樣式, Mode)이라 규정하자, 그러면 인간, 동물, 식물, 광물계의 양식은 각각 인격적(Personal), 행동적(Behavioral), 생명적(Biotic), 물질적(Physical) 양식이라 규정된다.

양식을 세분하여 양식들의 속에 있거나 일부가 되는 특성을 기능((Function)이라 규정하자.

1) 인격적 양식(Personal Mode)의 기능들 : ①세가지 “창조법령들” 즉 대신(對神), 대인(對人), 대물(對物)의 관점에서 인간의 활동에 초점을 두어 얻어지는 법령적 기능들(도표(3)의 F Ordinal Functions), ②선지자, 왕, 제사장 직분에 초점을 두어 얻어지는 직분적 기능들(도표(3)에 P, Official Functions), ③인격적 행위자들의 주도권의 정도에 초점을 두어 얻어지는 행동적 기능들(도표(3)의 W, Actional Functions) 로 세분할 수 있다.

①법령적 기능들은 다시 안식의 법령내지 인간과 하나님의 직접적 관계로서의 안식적 기능(Sabbatical Function), 가정의 법령내지 인간계(界)와 관계된 사회적 기능(Social Function)과 노동의 법령내지 아(亞)인관계와 관계된 노동적 기능(Laboratorial Function)으로 세분된다.

②직분적 기능들은 활동, 상태, 특성등의 지배적인 정도에 따라, 선지자적(Prophetic, 이것은, 의미, 통신, 지혜, 지식에 관계됨) 왕적(Kingly, 이것은 지배, 세력, 통치에 관계됨), 제사장적(Priestly, 이것은 천교에 관계됨) 기능으로 세분된다.

③행동적 기능들은 어떤 종류의 주도적 역할, 즉 남에게 주고있거나 내부에서 외부로 영향을 받는 활동들과 특성들에 관계된 능동적(Active) 기능, 어떤 종류의 응답적 역할 즉 남에게 받고 있거나 외부에서 내부로 영향을 받는 활동들과 특성들에 관계된 수동적(Passive) 기능, 상호교환이나 분배적 관계의 중간적(Middle) 기능으로 세분된다.<sup>24)</sup>

2) 비인격적 양식들(non-Personal Modes) 내의 기능들은, 계속해서 다소 사변적이며 하위계(下位界)로 갈수록 더욱 발견하기 힘든 활동과 특성들이겠지만, 대체로 행동체가 가지는 양식들의 활동과 특성들을 주도적 입장의 정도에 따라 암시적 능동적기능(Adumbrative Active Function) 암시적 수동기능(Adumbrative Passive Function), 암시적 중간기능(Adumbrative Middle Function)으로 세분되며, 의미(예 : 동물의 지각(知覺), 실행(예 : 식물의 성장), 가치(예 : 식물의 병)는 선지자적, 왕적, 제사장적 기능들과 밀접히 관련될 수 있다.

각 양식들내의 더욱 “전문화된” 기능들간의 관계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도표 4) 각 양식내의 기능들의 관계

계(界, Kingdom)	양식(樣式, Mode)	기능(機能, Function)
인간 (인류학, Anthropology)	인격적 : (인성학, Ethology)	선지자적 (선지자론, Prophetics)
	안식적 (전례학, Liturgiology)	왕적 (왕론, Basilies)
	사회적 (사회학, Sociology)	제사장적 (제사장론, Hieratics)
		(능) 의미를 주다 (수) 의미를 받다
		(능) 능력을 주다 (수) 능력을 받다
		교리적 (교리학, Dogmatics)
		장로적 (장로학, Presbyteriology)
		(능) 교리화, 기도 (수) 청종
		법적 (법학, Jurisprudence)
		경제적 (경제학, Economics)
		(능) 말하고 (중) 토론하고 (수) 듣고
		(능) 다스리고 (중) 협동하고 (수) 순종하고, 받들고
		(능) 친교하다 (수) 친교되다
		집사적 (집사학, Diaconology)
		(능) 봉헌, 헌물 (수) 신적축복받음 (신앙적으로)
		(능) 나누고, 거래하고 (수) 받고

24) 행동적 기능까지의 세분화는 성경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후 부터는 다소 사변적(speculative) 방법이며 따라서 덜 중요하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에 관해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요구하므로, 우리가 사변적이어야만 하는 입장에 대해 당황하지 않으며, 이것은 “가능한” 하나의 방법론이다.

	노동적 (노동학, Ergology)	인식적 (논리학, Logic)	기술적 (공예학, Technology)	미적 (미학, Aesthetics)
		(능) 특성화, 명칭 (중) 연구 (수) 알, 이해 선지자적행동적	(능) 만들고, 고정하고, 짓고 (중) 사용하고, 개발하고, 숙달하고 왕적행동적	(능) 단장, 장식, 재가 (중) 평가 (수) 감상 제사장적행동적
동물 (동물학, Zoology)	행동적: (행동학, Behaviorology) 혹은 Praxeology)	(능) 보고, 주시하고 (중) 인식하고, 관찰하고 (수) 보게되고, 듣고 선지자적생명적	(능) 응크리고, 배회하고 (중) 헛별죄고(?) (수) 앉고 왕적생명적	(능) 발견하고 (수) 노하게 되고 제사장적왕적
식물 (식물학, Botany)	생명적: (생물학, Biology)	(능) 살고 (수) 자양분받고	(능) 자라고 (수) 자극받고	(능) 재생산하고 (수) 키워지고, 수 분(授分)되고, 재생산되고
무기물 (무기물학, Inorganics)	물질적 (물리학, Physics)	선지자적물질적 혹은 수학적 (수학, Mathematics)	왕적물질적 혹은 운동학적 (운동학, Kinematics)	제사장적물질적 혹은 에너지적 (에너지학, Energetics)
		(능) 내포, 증가, 연장 (수) 내포됨, 한정됨, 산입(算入)	(능) 운동(자동적) (수) 운동됨	(능) 영향끼침 (수) 영향받음

※ (능)=능동적 기능(능동학, Energeticology)  
(중)=중간적 기능(중간학, Mesology)  
(수)=수동적 기능(수동학, Patheticology)

지금까지 살펴본 방법론의 세분화와 달리, 인간의 관찰·분석·평가의 관점들(Perspectives)과 견해들(Views)의 역할을 명시하는 방향에서 세분할 수 있다. (관점들은 가치론에서 후론한 것이다). 연구나 주의깊은 관심을 위하여 선택한 것을 항목(Item)이라 부르자. 용도상 편의로 만든 몇벌의 특징에 의하여, 분류학적으로 항목들을 정돈한 단절된 성질들에 초점을 맞추는 입자(粒子) 견해(Particle View), 항목들의 경계에 날카로운 단절을 요구않고 항목들의 연속적인 특성들에 초점을 두는 파(波) 견해(Wave View), 항목들의 상호의존적 특성과 관계들에 초점을 두는 장(場) 견해로 세분할 수 있다.

도표(4)를 통하여 우리는 세분화되는 학문분류의 방법론을 보게되며, 각 양식과 기능의 상관성을 입자, 파, 장 견해와의 상관성에서 다시 도식화 할 수 있다.

(도표 5) 입자, 파, 장 견해와의 상관성

1. 양식성(도표 3의 P.): 직분적기능; 선지자적, 왕적, 제사장적기능; 입자
2. 일시성(도표 3의 W.): 행동적기능; 능동적, 중간적, 수동적 기능; 파
3. 구조성(도표 3의 F.): 법령적 기능; 인식적, 사회적, 노동적기능; 장

여기서 양식들과 기능들간의 관계를 고찰해 보자. 첫째로, 양식들간에는 순위(Order, 도표3의 W)가 있으니, 상위계에서 하위계로 복잡성이 감소되는 순위; 인격적 양식내의 세 기능들간에도 하나님, 인간, 인간하위 피조물의 순위에서 유래한 인식적, 사회적, 노동적 기능들의 순위; 구원역사, 언약계시, 삼위일체에서 유래하는 선지자적, 왕적, 제사장적 기능들의 순위를 생각

하게 된다. 둘째로, 여기서 기능들간의 관계에 대하여는 영역주권(Sphere Sovereignty)이나 기능들의 주권(Sovereignty of Functions) 같은 용어가 적합하지 않다.<sup>25)</sup> 이 기능들은 서로 중복되며 맞물려있기 때문에, 연쇄성(interlocking)이나 비주권(nonsovereignty 도표 3의F)이란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른 기능들간의 연쇄성과는 별도로, 각 기능은 자자의 풍부성(luxuriance)내지 비감소성(nonreducibility 도표 3의P)을 가지고 있다. 하나의 양식이나 기능을 마치 유물론자들이 모든것을 물질적(physical) 용어로, 진화론자들이 생명적(Biotic) 용어로, 행동주의자들이 행동적(Behavioral) 용어로, 피타고라스학파는 수학적(Mathematical) 용어로, 맑스주의자는 경제적(Economic) 용어로 “감소”(reduce) 시키는것과 같은 시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모든 감소주의(Reductionism)의 기본적 문제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각각에 다양하게 분명히 보여 알게되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에 감사하는 대신, 한 양식이나 기능을 피조물에 대한 궁극적 설명으로 사용하려는 이상 숭배적 특성에 놓여있다.

감소주의를 다시 세분하여 ①어떤 주제를 논하거나 해석하려 할때, 하나의(혹은 몇개의) 관점(들), 양식(들), 기능(들), 혹은 다른 항목을 선취(先取)하거나 편애(偏愛)하는 강조적 감소주의(Emphasizing Reductionism) ②강조적 감소주의의 독자적 형태의 배타적 정확성을 고집하는 배타적 감소주의(Exclusive Reductionism) ③비기독신자가 우주의 “궁극적 설명”을 조립하기 위하여 핵심용어들을 동시적으로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 두가지로 모호하게 사용하는 교활한 감소주의(Slippery Reductionism)로 설명할 수 있다.

우리의 입장은 강조적 감소주의의 형태로서, 어떤 사실들을 강조하며 나머지는 생략하고 있는 바,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전문용어들에 대한 배타적 감소주의를 항상 경계하며, 자신이 쓰는 전문용어들을 일상언어에서 구별하여 규정하므로써, 교활한 감소주의의 위험을 항상 경계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분명히 강조적 감소주의가 배타적 내지 교활한 감소주의에 혼합되지만 않는다면 잘못된것이 아니지만, 우리는 자주 혼합형태로 다루어야만 하기때문에, ①성경에 직접 직면시키는 본체론적 비평(Ontological Criticism)<sup>26)</sup> ②감소주의 속에 결점을 가지고 있는 방법론의 분석에 의한 방법론적 비평(methodological criticism)<sup>27)</sup> ③감소주의의 자기 합리화의 비평 즉 가치론적 비평(axiological

25) Poythress는 Dooyeweerd, Vollenhoven과 Stoker의 Cosmonomic philosophy의 “spheres”에 대하여서는, 'sovereignty'란 용어가 적합하다할지라도, Abraham Kuyper의 “영역주권”에서도 교회의 직분자들(목사, 장로, 집사)의 권위를 그리스도의 유기적 몸에서 구별한 “제도적”교리에 제한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지금 시대에 “영역주권”이란 용어는 Kuyper가 예견 못한 비성경적 결론들을 추론하는데 사용될 위험을 지적하고 있다(p.107)cf. John M. Frame, *The Amsterdam Philosophy: A Preliminary Critique* (Harmony Press, c.1972), pp.46-49.

26) Herman Dooyeweerd, “Transcendent Critique of Theoretical Thought,” *Jerusalem and Athens*, ed. E. R. Geehan(Presbyterian and Reformed, 1971) pp.74-77에서 보여지는데로 이런 형태의 비평은 그에 의하면 더욱 “transcendent”이다.

27) 이 형태의 비평은 Dooyeweerd에 의하면 더욱 “transcendental”이다. cf. *ibid.*

criticism)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세가지 방법의 비평은 원전 독립적이기 보다는 상호 보충적, 연쇄적, 자극적인 관계에 있다.

(2) 일시성(一時性, Temporality) : 인간의 지도하에 피조물의 역사적 발달을 논하는 것은 역사철학(philosophy of history)의 개요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 논의는 그 자체로서도 중요함은 물론 과학적 임무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얻는 목적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며 무슨 목표들을 가져야 하는지는 어느정도(그러나 얼마만큼과 어떤 방법에서의 문제도 있다.) 우리가 역사의 어느 시기에 살고있는지에 의존한다. 과거에 소위 과학적 “법칙들”의 타당성이 지금도 같은 정도로 정확한가라는 또 다른 질문이 있다. 그것들은 미래에도 타당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에 답하려면 인류의 죄로 인한 타락, 노아홍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어떤 종류의 변화를 내포할 수 있는지를 조사해야 하는 것이다.

창1:28-30은 또다시 동물들을 다스리고, 식물들을 먹고, 땅을 경작하고 정복해야하는 인간을 말함으로 여러가지 국면들을 포함할 수 있는 변화와 발달을 위한 프로그램이 여기에 있게된다.

우리는 역사가 취하는 과정을 그리스도의 사역의 관점에서 이해해야만 한다. 따라서 1) 그리스도의 초림 이전으로서 구약시대를 준비시기(Preparation Period); 2)그리스도의 성육·생애·죽음·부활·승천의 복음서시대를 성취시기(Accomplishment Period); 3)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유익들을 적용하는 사도행전 이후의 적용시기(Application Period)로 나눌 수 있다. (참조; 갈 4:3-7; 눅 24:44-47; 행 13:17-41, 특별히 17-22절은 준비, 23-27절은 성취, 23-27절에 적용의 암시가 있다).

이 세 시기를 세분하면 1) 예수님의 ① 탄생설화에서 세례까지 ② 광야의 시험에서 겟세마네까지 ③ 심문 받으심에서 부활·승천·보좌에 좌정하심까지를 각각 출생적(Generational), 발전적(Developmental), 완성적(Culminational) 성취시기로; 2) 기독교인의 구속에 있어서 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는 회심(回心 Conversion)의 때 ② 이세상을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시기 ③ 사망이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시작되는 영광의 시기를 각각 개인적(Individual)인, 출생적, 발전적, 완성적 적용시기로, 또한 이것을 교회의 단체 생활에 적용하여 ① 오순절과 교회 설립의 때(사도행전) ② 교회 설립에서 그리스도의 재림때까지의 교회역사(계시록) ③ 그리스도의 재림때 교회의 영화(榮化 glorification)와 계속되는 때를 각각 단체적(corporate)인, 출생적, 발전적, 완성적 적용시기로; 3) ①모세시대(대체로 창3:8-11), ②왕적과 왕국의 설립시대(대체로 삿-왕상7: 내지10:) ③언약의 재가(裁可)의 실시시대(대체로 왕상8: 내지11: -12)는 각각 출생적, 발전적, 완성적 준비시기가 된다. (준비시기의 구분은 다른 시기에 비해 더욱 부자유스러우나 그 구분 근거는 Poythress의 책 pp. 58-60을 참조하라.)

여기서 각 시기들은 선지자적, 왕적, 제사장적 기능들과 맞물려서 어느 기능이 어느시기에 더욱 현저히 드러나는지를 보게한다. 또한 그 기능들이 구속의 역사와 맞물려, 하나님께서 어느

시기에 어떤 기능적 방법으로 일하시는지 분석할 수 있으며, 선지자적, 왕적, 제사장적 기능들을 내포한 사건들의 국면을 각각 소명적(Vocative), 동력적(Dynamic), 평가적(Appraisive) 국면이라 부를수 있다. 예를들면 출애굽의 구속에서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시며 그후 바로 명령하심은 소명적 구속이요, 백성과 함께 모세가 실제로 출애굽한것은 동력적 구속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만난것은 평가적 구속이다.

각 시기들간의 차이에 대한 평가는 역사가, 윤리학자 심지어는 자연과학자들의 결론들을 수정하게 할것이다. 예를들어, 자연과학자는 자신의 보외법(補外法, extrapolation)<sup>28)</sup>이 재림후에나 창조의 제7일째 전에도 반드시 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그는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이 선포하신 정책이(신28-30) 근동의 농업, 기상(氣象)등의 과학적 서술로서 발전적, 완성적, 준비시기에 가져올수 있는 차이들을 인식해야만 한다.

(3) 구조성(構造性, Structurality) : 도표(2)를 따라 네 피조물 계(界)의 연결과 관계를 생각할 때,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와 하나님 삼위간의 관계들도 포함해야한다. 이런 관계들을 조사함으로써 과학적 활동에서 법칙의 모든 중요한 역할과 과학적 조직들이 갖는 다른 사회조직들과의 관계를 평가하는데 도움을 얻게 된다.

1) 하나님은 스스로 관계를 가지신다. 그러나 삼위간의 관계는 큰 신비이다.<sup>29)</sup>

2) 먼저 하나님과 자기 백성간의 언약관계를 생각해보자. 개혁주의 신학은, 옛적과 이 모든날 마지막에 여러 모양으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모든것을 통합하는 구조적 개념으로 언약(covenant)이란 단어를 오랫동안 사용해왔다. ①하나님과 자기 백성간에 성경이 계시하는 재가(裁可)된 계약을 언약적 결합(Covenantal Bond)이라 규정하자. 성경은 언약적 결합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말씀으로 요약한다. 언약적 결합은 율법 및 그 집행과 언약들의 재가들을 모두 포함한다. 여기서 나머지 피조물도 그 언약적 결합의 영향을 받지 않는것은 아니다.

언약적 결합의 국면들을 구별하기위해, 하나님이 스스로 그 결합에 관련하여 무엇을 하셨는가에 초점을 맞춘 견해(View)를 제일 극(極) 견해(First Polar View)로, 그의 백성들에게 무엇이 일어나는가에 초점을 맞춘 제이 극견해(Second Polar View)로, 계약 당사자간의 관계 즉 언약적 결합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춘 축(軸) 견해(Axial View)로 세분할 수 있다.

그 결합이 이스라엘에 이르게된 방식의 면에서 언약적 말씀, 언약적 집행, 언약적 재가를 각각 어법적(語法的, Locutionary) 집행적(Administrative), 재가적(Santional), 국면이라 부를수 있으며, 좀더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이것들은 각각 언약적 결합의 선지자적, 왕적, 제사장적 기능들과 관계를 가진다. 또한 제일 극견해, 제이 극견해, 축견해 각각에 어법적, 집행적, 재가적 국면

28) "Process of estimating the value of a function beyond the range of known values within a series." Encyclopaedia Britannica, IV.

29) 마11:27; 요3:35; 14:11, 23; 고전2:10-11등

들을 논할수 있다. 제이 극견해를 예들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어법적),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켜거나 깨트리며(집행적), 이스라엘이 그 재가들을 받는(재가적) 것이다.

② 위에 언급한 언약적 결합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다루시는 모든것을 포함할만큼 넓은 범주가 되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며 행하시는가라는 관점에서, 하나님 자신과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관계들의 총체를 주인적 결합(Dominical Bond)으로 규정하여 언약적 결합을 포함하며, 종속적 결합(Servient Bond)은 피조물과 관계되는 언약적 결합의 일부로 규정한다. 우리가 주인적 결합에 관해 모든것을 알 수 없어도, 눈이 내리며 물이 얼며 바람이 일게 하시며(시147:15-18), 히틀러를 망하게 하시는 성경에 명백히 기록되지 않은 주인적 결합에 관한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다. ③ 그 결합과 증보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증보자”(히8;6:9;15;12:24)는 물론, 실제로 그 언약 자체이다(사42:6;49:8). 언약적 어법은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사역이요. 언약적 집행은 왕적 사역이요, 언약적 재가는 제사장적 사역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며 사람이므로, 그의 인격과 사역이 주님으로, 증보자와 언약자체로서, 사람이며 증으로서 각각 주인적, 언약적, 종속적 관점에서 고찰될 수 있다.

3) 피조물 서로간의 관계를 다루는데 단지 바른방법은 하나뿐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하나님은 너무나 경이롭고 피조물을 향한 그의 경륜은 너무나 풍부하므로 우리는 사물들을 완전히 분류할 수 있는것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피조물의 풍부성을 먼저 찬양해야 할것이다. 우리가 그 풍부성에 대해 재각성하며, 여러 형태의 관계들간의 차이점들을 지워버리지 않고 감소주의에 늘 경계할 수 있다면, 양식성의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분류는 유익할 것이다. 본체론적 범주들이 양식성, 일시성, 구조성에 적용되는것을 살펴온대로 본체론, 양식성, 일시성 및 구조성은 각각이 맞물려서 적용될수 있는 것이다.

### 5. 기독교 과학철학에서 본 가능한 가치론

“왜 그것이 거기에 있는가?”란 마지막 문제도 역시 종교적 질문으로 다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하며 그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간단한 하나의 포괄적 답을 줄 수 있다. “왜?”에 대한 좀더 자세한 대답 즉 가치론에는 윤리학(인격적 행동, 동기, 의향등의 평가)은 물론, 인간이외의 피조물들과 그런 피조물들을 포함한 사건들의 평가도 포함된다.

1) 먼저 인간의 행동들에 대해서 성경은 행동자체의 다소간 직접적인 묘사와(시119:1; 고전7:19), 내포된 동기들(롬13:8; 갈5:22)과, 행동이나 동기가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고전10:

31) 주의를 집중하는바, 그 각각을 윤리학의 규범적(Normative), 실존적(Existential), 상황적(Situational), 관점(Perspectives)들이라고 규정하자<sup>30)</sup> 여기서 상황적이란 Joseph Fletcher의 상황

30) 관점(Perspective)은 항목들의 가치론을 다루며, 견해(view)는 어떤 쫓점으로 항목들을 보는 방법으로 각각 구별한다.

윤리와는 정반대로 그 규칙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상황의 부분이다.

각 관점은 다른것들의 전체가되며, 이 세관점들은 비기독교인의 윤리학에서처럼 긴장이나 경쟁관계에 있지않다.

2) 이 삼중적 분류는 전체로서의 가치론에 각각 보편화될 수 있으니 ①가치에 관한 규칙들(하나님의 것이든 사람의 것이든) ②동적 전개에서의 그 항목자체들 ③그 항목들이 발생하는 상황에 쫓점을 둔 항목들의 가치를 보는 방법이다. 가치론을 세분한 윤리학은 다시 주인적 언약적, 종속적 윤리학으로 세분할 수 있으니, 각각 하나님이 무엇을 인정하시며, 그가 인정하시는 언약에서 그가 무엇을 말씀하시며, 사람은 무엇을 인정하는가란 질문에 대답하는 윤리학이다.

3) 가치론은 본체론과 방법론에 맞물려서 적용될수 있는것인바, 예들들면, 넷 계(界)의 어떤 것도 하나님, 사람, 그의 피조물의 유용성(가치)의 관점에서 세분될수 있는것은 본체론에, 적용된 가치론의 경우이다.

### 6. 학문과 지식, 지혜의 문제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무엇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식이 무엇인가? 지혜는 지식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이런 질문들은 과학철학상 무시할 수 없으며, 성경적 관점에서 현대과학 내지 학문을 다룸에 있어서, 한 걸음 더 접근하게 하는 것이다.

위의 질문들을 역시 우리가 종교적으로 대답한다면, 인간의 지식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Van Til은 “기독교 체계에서 지식은 성경에 계시된 대로, 어떤 사실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다.”고 정의한다.<sup>31)</sup> 지식은 하나님과 피조물에 관한 지식(본체론), 사물들을 다루는 방법과 사물의 작용방법에 관한 지식(방법론), 사물에 관한 진리의 지식(가치론)을 포함하며 수반한다.

우리는 지식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Poythress의 입장을 따라 (1) 하나님과 관련된 지식, (2) 인간과 관련된 지식 (3) 사물과 관련된 지식으로 세분하고, 그 각각에 대하여 1) 무엇을 알게되며(본체론적으로), 2) 어떻게 알게되며(방법론적으로), 3) 그 지식의 가치는 무엇인가(가치론적으로)로 다시 세분하여 고찰할 수 있다. 또한 ①하나님과 관련된 지식의 가치론적인 고찰은, 규범적, 실존적, 상황적 관점에서<sup>32)</sup>, ②인간과 관련된 지식의 방법론적 고찰은, 사물의 관점에서 전문화된 지식, 인간과 의사소통을 위해 채용된 지식,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관련하여 알

31) In Defense Of The, Faith, Vol. II A survey of Christian Epistemology. (Presbyterian and Reformed, 1970), p. 6; John Calvin, Institutes 제1장 1절을 참조하라

32) J. I. Packer, Knowing God (Hodder and Stoughton, 1973) 서언에서 John Mackzy의 말을 인용하여 지식에 관한 두가지 유형 즉 방관자적인 'balconiers'형과. 여행자적인 'which-way-to-go'와 'how-to-make-it'형으로 나누어. '죄' '악' 등의 예를 통해 설명한 것은, 이 가치론적 관점에 대해 암시한다.



고 있는 것에 관련된 어떤 것을 판별하는 것을 수반한 지식으로, ③사물과 관련된 지식의 방법론적 고찰은 그 항목이 다른 항목과 대조하여 독립적으로 시종일관 가지는 특성들, “동일”하다고 인식되는 중에서도 그 항목이 다양성을 띠는 차이들의 범위, 그 항목을 발생시키는 인접성에 관하여 더욱 세분될 수 있겠다.

지식의 기원이 하나님이니므로, 지식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고 또 계속해서 주시는 은사(선물)들중의 하나이다. 이 지식의 은사는 인간의 마음속[Calvin은 이것을 “종교의 씨”(seed of religion)라 부른다.], 창조된 만물(자연계시), 성경(특별계시)의 삼중적 계시를 통해 공급된다. 그러나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무지하여졌다. (1) 죄는 하나님에 관계된 지식들을 변질시켜,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우상숭배(예: 인본주의, 공산주의)(본체론적 변질); 이로 인해 하나님의 교훈에서 떠나 마귀의 교훈을 받게 되며(딤후4:1)(방법론적 변질); 성경의 신적권위를 부인하여 “물론경”같은 “계시들”을 만들어내며, 양심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요구에 무지하게 한다(가치론적 변질). (2) 죄는 인간에 관계된 지식들을 변질시켜, 성경의 주장을 방법론적으로 의심하거나, 과거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지식을 감사하지 않는 태도로 인간권위들에 방법론적으로 의심하게 된다. (3) 죄는 사물에 관계된 지식들을 변질시켜, 가상된 가장 단순한 법칙들을 주장하려는 감소주의와, 항상 자연법칙만을 주장하여 기적을 불신하며<sup>33)</sup>, 생물학적 진화론이 모든 학문체계에 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낳았다. 이 지식에 대한 죄의 전반적 영향은 연구행위 자체에도 영향을 끼쳐, 언약파괴자(Covenant-Breakers)에 의한 하나님 나라와 그 의에 적대되는 사이비연구행위(Pseudo Study), 사이비 학문(Pseudo Sciences)을 낳았다.<sup>34)</sup>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불신과학자들의 활동이 사이비 연구행위이지만, 그 결과물은 대개 순수(Genuine)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지식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언약을 파괴하는 과학자들의 업적에서 언약준수자(Covenant-Keepers)가 진위를 식별함에 있어 자주 가지는 난점을 부분적으로 설명한다. 불신자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어떤 것을 사용할 능력을 갖지 못했으므로, 이런 관점에서 책상위에 놓여있는 책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못하며,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수학은 비진리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이것이 불신자들의 무지를 성경이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한가지 이유이다.<sup>35)</sup>

바울은 특별한 은사로서의 지식을 언급한다(고전12:8). 이것은 신자 각인이 갖고 있는 참지식이 증대하고 심오하게 되는 것과 관계가 있다. 고전12:8-10에 있는 다른 은사들과 직분들의 목록들을 고전12:29; 엡4:11; 롬12:6-8의 말씀과 대조해 보면, 지식의 은사는 지혜의 은사와

33) 성경기적들을 현재에 관찰되는 규칙성들과 조화시키려는 다른 가능한 제안들이 있다. 예: Bernard Ramm, *The Christian View Of Science and Scripture* (Eerdmans, 1954), pp.156이하, 229이하, Russell W. Maatman, *Ibid.*, pp.31-43.

34) 일시성의 관점에서, 이것은 역사적으로 잘 규명된다. Francis Nigel Lee, *Central Significance Of Culture*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 1976)의 “The Growth of Culture”에 잘 설명되어 있다.

35) 엡4:17-19; 갈4:8, 개혁주의 통권57호(1973,6월호) “현대과학과 기독교” pp.75이하를 참고하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사실상 불가분리의 관계임을 성경은 가르친다.

지혜가 무엇인가? 지혜는 “최상의 유익을 위해 구체적인 상황에서 지식을 적용하는 능력”이라 정의할 수 있다<sup>36)</sup> 이 정의는 지혜가 가치론적 지식이므로 서로 분리될 수 없음을 잘 설명한다. 지혜는 “재주, 명철, 이해, 분별”등으로 번역이 될 수 있거니와,<sup>37)</sup> Edward J. Young은 “모든 재주(hokmah)를 통달(maskilim)하며 지식(da'ath)이 구비(yodhe'e)하며 학문(madda)에 익숙(mebhin'e)하여”((단1:4)를 주석하면서 “이 단어들인 세가지 구별된 정신적 기능들을 설명하기 보다는 단지 모든 종류의 지식에 익숙했다는 것을 강조하기위함이다”고 말한다.<sup>38)</sup> 하나님은 성소와 관련된 모든 기구들을 만듬에 있어서 브사렐과 오홀리압에게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총만하게하여 지혜(hokmah)와 총명(tebunah)과 지식(da'ath)과 여러가지 재주(mela'khah)”를 주셨고(출31:3)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지식(madda'e)을 얻게하시며 모든 학문(sêper)과 재주(hokmah)”에 명철하게하셨다(단1:17). 지혜는 지식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이다.

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예수안에 감춰어있다(골2:3). 예수 그리스도는 만세만대로 감추어있다가 십자가의 승리를 통하여 만민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신비요(골1:26, 27), 하나님의 지혜이다(고전1:7). William Hendriksen은 하나님의 지혜를 다음과 같이 예증하고 있다.<sup>39)</sup>

(1) 표적(이적)을 구하는 유대인에게는,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저주를 뜻하므로(신21:23; 갈3:13) 거리키는 것이었고,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에게는, 신은 초월적 완전타자이기에 어리석은 것으로 보던 그 십자가에서 하나로 만드셨다(엡2:13, 14).

(2) 죄인의 죽음을 요구하시는 공의와 죄인의 구원을 위해 요구되는 사랑을 십자가에 만족시켜 율법과 복음이 그 십자가에서 포용하였다(롬3:19-24; 5:8, 12, 13).

(3) 육적 이스라엘의 바로 그 거절로 이방인이 영적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다(롬11:30).

앞서 살펴본 대로, 죄는 지식의 전범위에 영향을 끼쳤으므로, 지혜에도 역시 영향을 끼쳐, “저희의 총명(dianoia)이 어두워 졌다.”(엡4:18 참조) 하나님은 유기자(遺棄者)의 눈을 멀게하고 마음을 굳게 하기위한 목적으로, 이제 소위 지혜자들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시고, 그 세상

36) William Hendriksen, *The Epistles To The Colossians & Philemon* (The Banner of Truth Trust, 1964), p.105. cf. Gordon H. Clark, “Excursus on Wisdom”, *I Corinthians a contemporary commentary*,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 Co., 1975) pp.46-58는 유익하다. 특별히 그는 사29:14과 관련하여 고전1:19의 주석에서 “지혜”와 “말씀(Logos)”의 관계를 규명하면서, 바울의 “지혜”사상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등의 헬라철학에 제한되지 않으며, 바로 구약의 지혜에 관계함을 상론한다.

37) “지혜”에 해당되는 전형적인 원어는 “hokmah”, “sophia”이나, 그의 많은 동의어들(예를 들면 binah, sekel, sunesis, phren등)이 “명철, 이해, 분별”등으로 번역되고 있다.

38) Edward J. Young, *A commentary on Daniel*, (The Banner of Truth Trust, 1972) p.41.

39) William Hendriksen, *Ibid.*, pp.105-106.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이시므로 그의 “전지성”과 “전능성”으로 골2:3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적 지혜를 사용하는 지유를 허용하신다(고전1:18~20; 2:9).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며 (딤후3:15 참조), 예수그리스도를 구주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빌3:8). 혹자는 성경의 뚜렷한 주제는 구원역사이며 성경전체가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라고 말할 때, 학문들에 대한 성경의 규범적 기능을 제한하려하나, 우리는 모든 현대과학이나 철학이 (신학은 물론) 구원 역사적 주제를 가져야만 한다고 주장해야 할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 그리스도안에 숨겨진 지식과 지혜의 보물을 캐는 흥분을 늘 맛볼 수 있을 것인가?

이 은사의 보물을 캐는 두가지 조건을 성경에서 찾아 볼 수 있다.<sup>40)</sup> 첫째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만 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출발)이다.<sup>41)</sup> (시111:10; 잠9:10; 비교. 욥28:28; 잠1:7; 15:33). 하나님의 거룩과 주권에 두려워 떨며(느1:5; 비교. 4:14; 9:32; 신7:21; 10:17; 시99:3; 렘20:11), 자신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다”(잠11:2). 이 겸손은 지혜의 부족을 절감하면서, 후히 주시며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한다. (골1:9; 약1:5, 교만한 자는 기도할 수 없다. 참조. 빌4:6; 빌전5:6,7)<sup>42)</sup>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배워야만 한다. 우리가 지식과 지혜에 심각하게 빈곤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이다(요7:17, 비교. 롬12:2 “Do not be conformed to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al of your mind, that you **may prove** what is the will of God, what is good and acceptable and perfect, RSV.”)<sup>43)</sup>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binâh)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dâ'ehû).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잠3:5,6).

화란의 수상, 신학박사, 목사, 평론가로 널리 알려진 Abraham Kuyper(1837—1820)는, 폴란드의 위대한 종교 개혁자인 John a Lasco에 대한 현상 논문에 필요한 참고 문헌을 화란과 진 유 유럽의 큰 도서관을 모조리 뒤졌으나 모두 허사였는데, Leiden 대학의 교수인 De Vries박사가 권하는 대로 그 박사의 부친의 서가에서 많은 책들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나의 현상논문의 생사가 달린” 이 보물을 발견한 흥분과, “책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했다. 그 현상논문의 상은 물론 그의 것이었고, 이것이 그의 박사학위 논문이 되었다.<sup>44)</sup>

땅콩 하나로 105가지 음식물과 200여가지 실용품, 고구마로 118가지 실용품을, 식물의 열매.

40) cf. J.I. Packer, *Ibid.*, pp. 90—91

41) cf. John Calvin, *Institutes*, 제2장1절

42) 지식과 지혜의 은사적 의미는 정신연령을 측정하는 수단으로서의 지능지수(IQ, intelligence quotient)는 비성경적임을 명시한다. 비평가들도 이 테스트의 문화적 편견이나 과도한 강조의 위험을 지적한다. cf. *Encyclopaedia Britannica*, Vol. V p. 376.

43) cf. 시119:99이하, 골3:16.

44) Abraham Kuyper, 칼빈주의 pp.13—14.

줄기·뿌리에서 500가지 식물성 물감을 만들어, 농산물 응용화학의 시조가 된 위대한 흑인 과학자 George Washington Carver(그의 출생일은 모르나, 그가 별세한 1943. 1. 5은 너무나 깊게 기억되고 있다)는, 목화재배로 지력(地力)이 쇠약한 미국 남부지역에, 질소고정을 하여 땅을 기름지게 하는 땅콩재배를 권장하였다. 너무 많은 땅콩처분의 문제앞에, 그는 마음이 피로와 기도하였고, “화학방정식을 지도하여 주시는 하나님<sup>45)</sup>을 겸손히 고백했으며, 국회에서 이 놀라운 발명을 어디서 배웠는지 질문을 받았을 때, “성경책”<sup>46)</sup>이라고 겸손히 답했다.

이것이 진정으로 IQ나 학벌이나 혈통이나 가문에 관계없이(고전1:26참조), 누구든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자세로 걸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 모든 선한 일 행하기에 완전한 사람”이 되게하시는 (딤후3:17),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의 실증이며, 아무 유체라도 하나님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며 자랑하는 자는 “주안에서 자랑하라”함이다(고전1:29, 31).

## C. 결 론

연구행위는 회개행위이다(Study is Personal Activity with Repentance). 많이 알수록 많이 회개한다. 죄악이 나와 인류와 세상에 본체론적으로, 방법론적으로, 가치론적으로 얼마나 깊은 골을 파고 있으며, 이로 인한 비참을 바라보면서, 내가 회계(會計)할 것인양 애통하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을 노래한다. 신앙이 회개와 분리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이, 지식과 지혜가 분리되거나 대치되어서는 안된다(고전12:8,9 참조).<sup>47)</sup>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안에는 인간의 책임적인 자유의지에 의한 자료를 인정하시고 활용하실을 내포한다.<sup>48)</sup> 성경역사나 교회역사에 위대한 인물들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꼭 쓰시 고자 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그 부르심에 충분한 자료(불살개)가 있어야한다.

연구행위를 인하여 당하는 고난들은 바로 진리를 위해 고난당해야 하는 경우를 위한 유익한 연습(훈련)이다. 우리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고후10:5) **순수학문(Genuine Sciences)**을 **언약준수자(Covenant-Keepers)**로서의 **순수 연구행위(Genuine Study)**를 통하여 확장, 심화시켜야 할것이다.

Soli Deo Gloria !

45) Lawrence Elliott, *George Washington Carver: The man who overcame*(땅콩박사, 광안전역, 대한기독교서회 현대신서 ㉞, 1970) p. 156

46) op. cit., p. 171.

47) 구약의 “알다”(yāda)는 “경험을 통하여 안다”(know through action)이다.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창2:17)란 이 과일 따먹을 때, 지금 어떤 악이 와 있으며 앞으로 어떤 선이 와야 할 것인가를 알게하는 나무란 뜻이 있다. cf. 이규호, **알과 삶**, (연세대학교출판부, 1972)

48) Ronald Youngblood, *The Heart Of The Old Testament* (Baker Book House, 1971) pp. 27—35

참 고 문 헌

- I. 국내서적(번역서 포함)
- ① 이근삼. 칼빈·칼빈주의. 고신대출판부, 1976중보판
  - ② Elliott, Lawrence. *George Washington Carver: The Man Who Overcame*. (땅콩박사 광안전역, 대한기독교서회, 현대신서 26, 1970).
  - ③ Kuyper, Abraham. *Lectures on Calvinism*. (칼빈주의. 박영남역, 세종문화사, 1971).
  - ④ Packer, J. I. *Fundamentalism and the Word of God*. (근본주의와 성경의 권위. 육한흠역, 한국개혁주의 신령협회, 1973)
  - ⑤ Van Til, Henry R. *The Calvinistic Concept of Culture*. (칼빈주의 문화관. 이근삼역, 영음사, 1972).
- II. 영문서적
- A. 주석 및 백과사전
- ⑥ Clark, Gordon H. *I Corinthians a Contemporary Commentary*.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 Co., 1975.
  - ⑦ Geldenhuys, Norval. *Commentary on the Gospel of Luke: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 T.*, Eerdmans, 1951.
  - ⑧ Hendriksen, William. *The Epistles to the Colossians and Philemon*. The Banner of Truth Trust, 1964.
  - ⑨ Morris, Leon. *Luke: Tyndale N. T. Commentaries*, Tyndale Press, 1975.
  - ⑩ Young, Edward J. *A Commentary on Daniel*, The Banner of Truth Trust, 1972.
  - ⑪ *The New Encyclopaedia Britannica*. Vol. V. VIII. and 16, 1975.
- B. 과학, 철학 및 신학서적
- ⑫ Calvin,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 ed. John T. McNeill, The Westminster Press, 1967.
  - ⑬ De Jong, Norman. *Education in the Truth*. Presbyterian and Reformed, 1969.
  - ⑭ Hooykaas, R. *Religion and the Rise of Modern Science*, Eerdmans, 1972.
  - ⑮ Lee, Francis Nigel. *The Central Significance of Culture*. Presbyterian and Reformed, 1976.
  - ⑯ Maatman, Russell W. *The Bible, Natural Science and Evolution*, Reformed Fellowship, 1970.
  - ⑰ Packer, J. I. *Knowing God*. Hodder & Stoughton, 1973.
  - ⑱ Poythress, Vern S. *Philosophy, Science and the Sovereignty of God*, Presbyterian and Reformed, 1976.
  - ⑲ Ramm, Bernard. *The Christian View of Science and Scripture*, Eerdmans, 1954.
  - ⑳ Reid, W. Stanford. *Christianity and Scholarship*. The Craig Press, 1966.
  - ㉑ Schaeffer, Francis A. *Pollution and the Death Of Man: The Christian View of Ecology*. Hodder & Stoughton, 197.
  - ㉒ \_\_\_\_\_ *The God Who Is There* idem., 1968.
  - ㉓ \_\_\_\_\_ *He Is There And He Is Silent*. Tyndale House Publishers, 1972.
  - ㉔ Van Til, C. *A Christian Theory of Knowledge*. Presbyterian and Reformed, 1969.
  - ㉕ \_\_\_\_\_ *The Defense of the Faith*. 3rd rev. ed. idem., 1967.
  - ㉖ \_\_\_\_\_ *In Defense of the Faith*, Vol. II. *A Survey of Christian Epistemology*. idem., 1970.
  - ㉗ Youngblood, Ronald. *The Heart Of the Old Testament* Baker Book House, 1971

# AN EXEGETICAL STUDY OF GALATIANS 3:10-14

John K. Hunt

## Exegesis of Galatians 3:10-14

By way of introduction to this portion of Scripture it would be helpful to observe the context and the argument of the Apostle Paul. One of the major themes of this epistle is that justification is by faith. This thought and the arguments for it, as well as the arguments against the contrary viewpoint are found throughout the epistle. In the immediate context of Chapter three Paul had just stated that justification was by faith. Therein was set forth the positive side of the theme. In verses 10 through 12 Paul defends the idea that justification is by faith from the negative viewpoint. He does this by showing the predicament in which those who seek justification by the law find themselves. The apostle might have asked the Galatians two questions: What does the law say about relying upon works of the law for justification? Was the purpose of the law to justify a man in the sight of God?

Verse 10 *δοοι γάρ ἐξ ἔργων νόμου εἶσιν, ὑπὸ κατάραν εἰσὶν γέγραπται γὰρ ὅτι Ἐπικατάρatos πᾶς ὃς σὺκ ἐμμένει πᾶσιν τοῖς γεγραμμένοις ἐν τῷ βιβλίῳ τοῦ νόμου τοῦ ποιῆσαι αὐτά.* Various commentators refer to this verse as the "argumentum e contrario". The *γάρ* introduces the argument in v. 10, in which Paul seeks to show by Scripture what happens to those who depend upon the works of the law. By the use of *δοοι* Paul has in mind both Jew and Gentile, applying it particularly to those Judaizers who were relying on the law as a means of justification. It is placed first in the sentence probably for emphasis.

*ἐξ ἔργων νόμου.* This phrase is contrasted with *ἐκ πίστεως* of verse 7. *Merrill C. Tenney* in his book "Galatians-A Charter of Christian Liberty" has classified the various uses of the word "law". In the verse before us the article is absent in the Greek. *Tenney* comments: "The absence of the article usually means that the quality of the given concept is stressed rather than its identity, although in this context it refers to the Mosaic law as the chief embodiment of the concept." He gives the following translation: "as many as are of law-works". The